

지난해 11월 대전의 마지막 캠프에서 음주운전으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후 KBO로부터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하주석은 자숙 끝에 11일 잠실 LG와의 경기에서 1군에 등록되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한 하주석은 "제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하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정말 반성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경기를 포함해 두 경기는 비로 인해 열리지 않았고, 12일 LG와의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후 벤치에 앉아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당분간 대타로 기용될 예정이지만 벤치에 둘 수는 없습니다. 복귀 첫 타석에 들어서면 대전 홈팬들 앞에서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속죄를 다짐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이나 부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일 1군 엔트리에서 탈락한 박건우는 이른바 '일감' 논란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수원 KT와의 경기 도중 교체를 요청한 NC 강인권 감독은 팀워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인권 감독은 "선배로서 갖춰야 할 덕목뿐만 아니라 갖춰야 할 덕목도 있다고 생각한다. '원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이 있다. 그 부분에서 박건우에게 많이 실망했다"며 박건우가 베테랑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강 감독과 박건우는 지난 7일 만났습니다. 박건우는 15일 올스타전에서 안타를 친 후 1루 베이스 코치였던 강 감독에게 각각 90도 인사를 건네며 해빙

무드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1군에 합류해 후반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군 엔트리 등록과 함께 21일 한화와의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링크짱](#)

두 선수 모두 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소연은 한때 팀에서 대체 불가능한 유격수로 여겨졌습니다. FA로 재도입된 오선진에 이어 이도윤이 빈자리를 잘 채우고 있지만 하주석이 공격과 수비에서 더 큰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6년간 총액 100억 원에 FA에 영입된 박건우는 7년 연속 타율 0.300을 기록한 중장거리 타자로, 그의 기량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선수의 복귀로 두 팀도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3위(28승 23패 3무 549패)로 반등한 한화는 5위 롯데에 2.5게임 차로 8위로 포스트시즌 진출권에 들어섰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3라운드부터 4위로 내려간 NC도 5라운드에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숙의 시간을 보낸 하주석과 용서를 받은 박건우가 후반전 속죄로 준결승 레이스를 뜨겁게 달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